

## 재난구호활동 체계화 된다

조계종 '자비의 나눔운동본부' 5월경 창립 추진  
 의료·자원 봉사 주축... 첫 사업 스리랑카 복지타운

전종단차원에서 남아시아 지진해 일 피해민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조계종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설구호단체를 설립한다.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2월 24일 지진이나 홍수나 같은 국내외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자비의 나눔운동 본부' (이하 운동본부)를 창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던 불교계의 재난구호 사업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자비 운동'을 일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불교계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에 따르면 운동본부는 총무원, 포교원 등의 중앙종무기관뿐 아니라 사회복지재단, 동국대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산하에 상설 의료봉사단과 자원봉사조직을 둘 예정이다.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지에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금명간 조직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구체적인 창립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각종법회 등을 통해 '자비나눔 기금'을 조성한다. 2003년의 스리랑카 대홍수나 지난해 발생한 북한 통천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기금을 운동본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금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또 불우이웃과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재활을 돕는 용도로도 쓰인다.  
 조계종 사회부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상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개신교의 월드비전이나 국내

이버스와 같은 구호단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운동본부의 실질적인 첫 사업으로 4월 초 이전에 남아시아 지진해일 희생자들에게 대한 천도재를 봉행하고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설을 시작한다. 복지타운 건설이 운동본부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셈이다.  
 2006년 완공되는 복지타운에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비롯해 컴퓨터와 한국어 강좌를 진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 헬터 불교 경전연구센터, 보건소, 사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복지타운은 스리랑카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풀몰보 인근의 5만여 평 부지에 건립된다.  
 한편, 조계종은 2월 24일까지 총 17억4천2백5만2052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 연등축제 5월 8일

봉축위, 연등법회 등 봉축일정 발표



254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포스터.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주요 행사가 5월 6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전통등 전시회'를 시작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연등축제 전야제인 '연등놀이'는 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조계사, 우정국로, 인사동 등지에 열린다.  
 연등 만들기, 서각과 탁본, 선무도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마당'은 8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우정국로에서 진행되며, 같은 날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동대문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어울림 마당'에서는 3만여 제등행진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연등법회' 등을 봉행한다.  
 어울림마당 참가자들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동대문에서 우

정국로까지 연회단의 신명나는 음악과 율동 속에 화려한 장엄등과 10여 작은 등불을 들고 '제등행진'을 한다. 우정국로에 도착한 제등행진단과 시민들은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분홍의 꽃비를 맞으며 우정국로에서 '대동한마당'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서원을 태워 희망의 불씨를 만드는 '서원문 소지' 등을 통해 연등축제가 '화합과 희망의 축제'임을 느낄 수 있다.  
 봉축법요식은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계사 및 전국사찰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봉축위원회 박상희 과장은 "불자들의 보다 신명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지울 스님 조사참여 정책협상 담당 할듯

지울 스님이 천성산 환경영향 조사에 직접 참여한다.  
 천성산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공동조사단 7명중 정책협상을 담당하는 2명에 지울 스님을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건강 상태를 보이며 향후 활동 쪽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성산 환경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3월 31일경 최종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울 스님측 간사를 맡고 있는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도 정부측 한국철도시설공단 배용득 건설본부장은 최근 여러 차례 협의를 갖고 이와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재철 국장은 "3월 31일경 지울 스님과 정부 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전문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부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용득 건설본부장도 "3월 초에는 공동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철주 기자



제천 신륵사 극락전 외벽에서 발견된 '사명대사행 일본지도'.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전후 교섭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모습. 가마를 탄 사명대사를 100여명이 앞뒤로 호위하고 있다. 19세기 초 작품으로 추정된다.

## 사명대사 일본행 묘사한 벽화 발견

충청대박물관, 신륵사 극락전서... 19세기작 추정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당시 강화 정사로 일본을 방문하는 장면을 묘사한 벽화가 한 사찰에서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청대 박물관(관장 장준식)은 충

북 제천시 덕산면 신륵사 극락전(충북 지방유형문화재 제132호) 외벽에서 가로 17.4m, 세로 8m인 '사명대사행일본지도(西冥大師行日本之圖)'를 확인했다. 2월 24일 밝혔다.

이 벽화는 임진왜란 승병장인 사명대사가 가마를 타고 있고, 일본인들이 호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박물관측은 그림의 필법 등을 감안 19세기 초반 흥안 스님이나 신겸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했다.  
 사명대사의 일본행과 관련된 그림이 벽화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

으로, 신륵사는 이 벽화 외에도 136점의 벽화와 우수한 기법의 단청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준식 관장은 "이 사찰에는 사명대사 일행의 벽화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많은 벽화와 단청이 있는 만큼 훼손을 막기 위한 현충모사 등의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륵사는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의 말사로 신라 진흥왕 4년(582년)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3월 5일 오후 2시 범어사에서 입제

광복60주년의 해 3·1절 특집 13면

**'할'**

더 먹고 싶으면 내것을 줄게

새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남의 곤란을 덜어주는 것

어쭙 이타행 (無二行)

그림·조태호

해경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큰 래 들어 선 수행에 대한 관심이 동 서양을 막론하고 비등한 가운데 특히 한국불교계에는 간화선풍을 바로 계승하고자하는 열의가 뜨겁습니다. 이에 때맞춰 선찰대본산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說禪)대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성월, 용성, 동산, 전강, 고암 대 선사 등 근 현대 대선지식들의 수행가풍이 울리게 살아 있는 범어사에서 이 같은 법회가 열리는 것은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참가 대중에게도 직 지인신 건성성불의 인연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처럼 열리는 설선대법회에 참석하시어 구름에 가려진 마음의 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제: 문 없는 문을 열다

- 기간: 3월 5일 일제 ~ 5월 7일 월요일. 매주 토 / 중 10회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범어사 - 보계루 / 부대행사(잠언 등) - 열법전
-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제 14교구본사 범어사,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원, 부인사 불교연인회, 범어사 인도회,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중동문, 부인사 불교인도회, 부인불교실업인회, 부인불교가사팀,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범부신문, 주간불교

- 부대행사
    - 의망기에 인제 진행되는 프로그램
    - 주말 잠언 제업 (토요일 법회 종료 후, 19시 입선 ~ 23시 방선)
    - 전체 법의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전체 경전 참가자에게는 인거증을 나누어 드립니다.
  - 법의 동영상 중계는 beomeosa.co.kr과 buddhanews.com에서, 법문 요약은 매주 '현대불교' 24~25면에 소개됩니다.
  - 법의 비디오·카세트 테이프·오디오판은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동참문의 : 범어사 원주실 ☎ 051)508-3636

**3월 5일 입제범어 설선대법회의 의의**

지울 대 선사(범어사 조실)  
 . 법의 법사: 구주 스님 (수좌)  
 . 재가 법의사: 권만연(동아대학교 교수)

**5월 7일 회향범어 무차선(無遮禪)법회**

진계 대 선사(동화사 조실)

<p><b>3월 12일</b> 21세기 대안, 왜 선인가?</p> <p>해국 스님(의종사 금봉선원)              . 법의 법사: 설우 스님(법안정사 선원장)              . 재가 법의사: 김경원(조계종 국제포교사)</p>	<p><b>3월 19일</b>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참선수행</p> <p>고우 스님(라화사 선덕)              . 법의 법사: 해경 스님(조계종 금정불교대학 교수)              . 재가 법의사: 김동진(동아대학교 교수)</p>	<p><b>3월 26일</b> 선과 삶</p> <p>인각 스님(범어사 금어선원 원주)              . 법의 법사: 설우 스님 (수좌)              . 재가 법의사: 지요경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사, 범어사 신도회 부회장)</p>	<p><b>4월 2일</b> 자비의 지혜를 조화롭게 닦는 선수행</p> <p>현산 스님(해암사 선동선원)              . 법의 법사: 종대 스님 (전 태안사 선원장)              . 재가 법의사: 박근호 (전 부산불교실업인회 부회장)</p>	<p><b>4월 9일</b> 선 수행의 바른길</p> <p>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 법의 법사: 강철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사무처장)              . 재가 법의사: 최익두(부인사 법우회장)</p>	<p><b>4월 16일</b> 생사 문제의 선수행</p> <p>무어 스님(속서사 선원장)              . 법의 법사: 영일 스님 (수좌)              . 재가 법의사: 이태원(선원포럼 명예회장) 류상영(대법원 부인사 부회장)</p>	<p><b>4월 23일</b> 회두는 조사공안이다</p> <p>원웅 스님(해인총림 수좌)              . 법의 법사: 홍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 연구원)              . 재가 법의사: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영동서사 사장)</p>	<p><b>4월 30일</b> 선 수행의 단계</p> <p>정광 스님(명암사 태고선원)              . 법의 법사: 지환 스님 (승려사 불교학)              . 재가 법의사: 설동근(부인사 승교과장)</p>
---	--	--	--	--	---	--	---